

추석 방역 대책·상권 살리기 고심

“추석에 고향 찾지 말아주세요”

고흥군, 향우들 방문 자제 군수 서한 보성군, 온라인 차례·영상통화 지원 완도·해남군, 출향인 대상 별초 대행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이동 멈춤 운동'과 함께 별초 대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흥지역 주민 90%가 추석 귀성객의 고향 방문을 반대했다. 명절이 설레고 가족이 그리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완도군에 이어 해남·고흥·보성군이 '추석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다. 대신 지자체들은 별초 대행과 온라인 합동 차례, 가족 영상통화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추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완도군과 해남군은 '추석 이동 멈춤 운동'의 하나로 '별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향에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연고자가 없거나 별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완도군은 완도산립조합과 협약을 맺고 각 읍면당 50기를 한정으로 별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행료는 1기당 4만원이며, 접수는 18일까지다.

해남군도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별초 대행 신청을 받는다. 별초는 해남산립조합이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대행료는 기존보다 40% 할인된 4만원이다.

고흥군은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귀성객 고향 방문 자제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귀성을 준비한 출향객들이 고향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우선 전국 각지의 향우들에게 고향 부모·형제의 건강과 안전, 청정 고향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귀성객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성군도 추석 연휴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아울러 보성군민에게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조정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군은 고향 방문을 고민하는 향우들에게서 한문을 발송,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요청했다.

보성군은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을 위해 온라인 합동 차례를 준비하는 한편 지역 내 가족들과의 영상통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향에서 온 편지' 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고향 소식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는 노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만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은조·박희석·주각중·김용백 기자 ejhung@

보성군, 모든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여수시, 시민 접종 비용 일부 지원

수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보성군과 여수시가 여기에 더해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접종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도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18세, 임산부, 만 62~64세로 늘렸다.

8일 보성군과 여수시에 따르면 보성군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겨울철 동시 유행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해 무료 접종한다.

여수시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 19세에서 61세까지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19~61세 지역민들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먼저 60세에서 61세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비와 접종비용 전액을 여수시에서 지원한다. 19세에서 59세까지는 본인 부담비 중 1인당 1만원을 지원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8일부터 실시한다.

여수시도 '더블 데믹'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로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도 독감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백신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돼 공급된다. 4가 백신은 A형 독감 2종과 B형 독감 2종 등 4종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질서 대혼란 등 치명적인 상황이 올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완도해경, 섬 확진자 이송 위해 '음압들것' 도입

완도해양경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섬지역에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자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압들것' 장비를 도입,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서가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압들것' 장비를 도입했다. (완도해경 제공)

'음압들것'은 격리 기능과 운반 기능이 통합된 감염 및 감염의심환자 이송용 장비로 2차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경은 특성상 해상사고와 섬지역 출동이 잦은 데다 좁고 밀폐된 경비정으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어 2차 감염에 노출돼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해상 응급환자 총 133건을 옥지병원으로 이송했다.

발생하면 이송에 나선 대원들은 감염이 우려되고 자칫 해경 전체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음압들것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점심 한끼 식당서 시켜먹어요”

광양제철소, 매출 급감 식당 살리기 배달 캠페인 벌이고 '훈훈한 한끼'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배달해 먹는 '점심 한끼 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배달해 먹는 '점심 한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외부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인근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의 '점심 한끼' 배달 운동 덕에 인근 식당의 매출은 오르고, 직원들은 정성껏 지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직원들은 포장이나 배달이 어려웠던 식당에 협조를 구해 삼계탕, 돌솥밥, 가정식백반 등을 주문했다. 식사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주의해 상호 거리를 두고 한방향으

로 앉아 훈훈한 점심식사를 했다.

광양제철소 한 직원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연거푸 세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는 곳엔 날씨 속에서 고생하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직원들 모두를 위해 소중한 '점심 한끼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 태인동의 한 음식점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알지만 아무래도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져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점심 한끼 운동'을 펼쳐준 광양제철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전세버스·화물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여수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다른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가 많았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340명(전세버스 319명, 화물 1021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6억 70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수시는 5월27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소지를 여수시에 둔 운수종사자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에 있어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영업장의 소재지나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화물운수업의 특성상 주소지와 영업장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여수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